

情報通信 革命的 社會的 合意

김 경 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 글 머리에

주요 기술의 혁신과 사회변동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을 취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든, 거기에는 대체로 일종의 양면성이 개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예컨대, 기술혁신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 공헌을 하는 면이 있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든가, 또는 기술 혁신이 사회의 변동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 변동 내의 저항을 촉발시키는 수도 있다는 등의 보기에서와 같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양면성을 부각시키는 관점에 서서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보통신 혁명이란 주로 전자통신 분야의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에 관련있는 양적, 질적 변혁을 통틀어 일컫는다. 이것은 오늘날과 다가올 미래에서 인간의 삶을 좌우해 줄 기술 혁신 가운데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른바 현대의 첨단과학 분야를 우주공학, 생명과학 및 통신공학 등으로 이해한다 해도, 정보통신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은 그것이 바로 나머지 분야에서 필요 불가결한 혁신 창조요소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만 하다.

다만, 기술공학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의 처지인만큼, 그 방면의 기술혁신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릴 수가 없음을 밝혀 두는 게 옳겠다. 오히려 사회과학도로서 중요시할 쟁점은 그와 같은 기술변동의 사회적 결과라든가, 그러한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미래의 사회에 대처하는 데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 같은 것을 둘러싸고 제기함직한 것이 될 줄 안다. 이런 쟁점들을 다루자면 그 의의를 체계적으로 천착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고려도 결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나 쟁점의 개괄적인 검토에 그치는 성질의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주된 까닭은 이 방면의 사회과학적 이론의 개발이나 실질적 연구가 아직껏 미비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2. 기술혁신과 사회변동

먼저 여기에서는 기술혁신과 사회변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일반론적인 고려를 개괄적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우리의 주제를 다루는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변화 과정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상호적인>(reciprocal) 관계, 또는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관계를 띤다. 그러나, 보는 이의 관심에 따라서는 기술의 변화는 넓은 뜻의 사회변동의 일부분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글의 취지로 보아, 사회변동은 사회적 관계와 행위의 유형, 사회조직의 원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그런 사회적 제 측면에 대한 성원들의 사회의식(가치관, 태도) 등에 있어서의 변화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은 극히 좁은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그처럼 기술과 사회를 따로 생각하기로 가정하고, 그들의 관계를 변화의 상호작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영향 미치는 방향을 〈기술→사태〉 또는 〈사회→기술〉 이라는 양쪽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그 어느 것이 전자이고 어느 것이 후자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좀더 유용한 접근은 양쪽 관계를 모두 취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제의 성격상 이 글에서는 기술혁신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관점을 부각시키는 쪽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이런 입장을 일단 택하고 보면, 사회학에서 그동안 시사해 온 바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게 된다.²⁾

첫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 가능성을 그 폭과 종류에서 크게 증대시켜 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대안적 선택을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둘째,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더 많은 대안들이 생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제들이 생성하기도 한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의식과 대처의 시도는 사회변동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 좀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기술의 변화는 경제적 생산활동의 성격을 바꾸고, 따라서 인구생태적 변동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넷째, 위의 변화는 대개의 경우 사회계층 구조의 변동을 수반한다.

다섯째, 기술의 변화는 가족을 비롯하여 정치·경제·교육·종교 등 원초적 사회제도는 물론, 대중통신·여가와 오락·후생복지와 같은 파생적 사회제도에 대해서도 갖가지 긴장을 일으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여섯째, 기술변동은 사회조직체·집단들의 구

모와 성격을 변질시키는 효과를 자아내기도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관료 조직화화의 성향을 강하게 띠어 왔다.

일곱째, 사회조직 원리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혁신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의 유형 및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여덟째, 기술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사회세도의 위치까지 점유하게 되면, 인간의 인지구조, 상징체계, 신념과 가치지향마저도 바꾸는 힘을 갖는다.

물론, 이상의 개관으로는 기술혁신이 사회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제를 자세히 파악하는 데 미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이제부터 살펴 보고자 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유용하다는 것만 인정하면 족하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 둘 점은,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인간의 삶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쟁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술변동은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에서도,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또 갖가지 부정적인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 양면성에 우리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에서 간추린 바와 같이 기술이 사회의 변동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사회는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를 놓쳐 버릴 수가 없다. 그들의 관계가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 자체의 변동기제를 가지는 것이지만, 특히 현대의 기술혁신은 그 사회적 충격이 크고 깊어지는 게 두드러진다. 이 경우, 우리는 변화의 속도라는 요인에 주목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기술혁신 또는 개발의 속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가속화하는 일종의 J곡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처럼 기술변동의 속도가 급속화하므로써 사회에 대한 충격이 또한 더욱 커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에 격차가 생기므로 이를 문화지체(culturallag)라 일컫는 학자가 있다(Ogburn, 1966).

이같은 문화지체는 사회의 여러 측면들로 하여금 적응을 필요케 하는 긴장을 자아낸다. 사회문화 현상은 대체로 일종의 체계 system을

인식할 수 있는데, 체계란 그 부분요소들 간에 밀접한 상호의존과 상호관련의 관계를 띠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기술이라고 하는 제도 영역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도 다른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지체현상이 일어나면, 자연히 어느 정도의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적응의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적응에의 긴장이 각 부분요소들에서 나타난다.

한번 충격을 받은 사회체계의 각 부분 요소들에는 우선 제 나름의 일차적·즉각적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충격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파도나 파문처럼 다른 부문에까지 파급할 뿐 아니라, 때로는 심한 반동(repercussion) 효과마저 자아내게 된다(Moore, 1974).

기술혁신의 사회적 함의를 논의할 때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 같은 충격의 즉각적 결과, 파급효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반동작용에도 쏠리게 된다. 그 까닭은, 이러한 적응의 과정 여하에 따라서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에 유리한 결과를 사회에다 안겨주기도 하고 그 반대의 혼적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적응에의 성공 여부는 그 사회의 뜻있는 존속마저도 좌우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앞으로 기술혁신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도 하는 것이다.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사실 우리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고 심각한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사회란 종건 싫건 어차피 기술사회, 특히 정보통신사회로 자리잡지 않고서는 변형은 커녕 존속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3. 정보통신 혁명과 사회변동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변화는 그것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혁명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사회변동의 폭과 성격에 비추어서 볼 때 역시 혁명적이라 할만한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사회변

동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로 한다. 단지 모든 측면을 평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앞서 일반적 개념들에서 제시한 내용을 배경삼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다.³⁾

첫째로, 무엇보다도 주목할 사항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폭증(information explosion) 현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정보의 생산차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맥락에서 보아 미래에는 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보의 폭증은 우선 정보의 생산면에서 양적인 팽창을 뜻하지만,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분석적으로 더듬어 보면, 그것이 것처럼 단순하고 평면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된다. 가령, 정보를 아무리 많이 생산·창출한다고 해도, 그것을 배포할 유통기술은 물론, 기제나 제도, 의지, 유인(incentive) 같은 게 없으면 태어나면서 사장되어 버리는 사산(死産)의 운명만이 있을 따름이다. 또한, 비록 유통이 된다해도, 그 정보를 이용·소비하고자 하는 이들의 용의도나 준비태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할 기술적 행동양식과 지식, 혹은 기술(技術, technicways)이 결여하다면, 그 또한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문화지체와 적응적 변동(adaptive change)의 쟁점이 떠오른다. 이 문제는 뒤에 다시 다루겠다.

한편, 그런 조건들을 구비한 상태를 전제하고 정보폭증의 사회적 결과를 두고 먼저 생각해 본다면, 정보의 양과 종류가 늘어남으로써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확대된 선택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이는 개개 성원들의 자율적 선택의 여지를 그만큼 더 준다는 말도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대안들에서 자신의 자아실현에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하여 이러한 개인들의 자아완성 과정이 집합적으로 수행될 때에는 공동체 단위로서의 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기회가 따라서 커진다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사회의 발전에는 커다란 공헌을 하

는 셈이 된다(김경동, 1979; 1984).

그렇지만, 정보의 폭증 자체는 크게 서너 가지 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수량과 종류의 정보는 인간에게 오히려 선택의 부담을 주고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 다음은 많은 것은 혼란 것이 될 수 있고, 정보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보의 양적 팽창을 감당치 못하는 조직체의 비능률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둘째, 인간의 생산활동과 관련, 정보통신 혁명은 (일)의 의미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통제의 쟁점이다. 공업사회에 있어서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인간소외의 특징은 생산의 수단인 기계와 생산과정 자체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 제약되어야만 했던 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노동과정은 개개 근로자의 창의력과 자율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성질의 것으로 변하게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통합이 가능해지는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모든 개개 성원은 스스로의 취향에 따라, 직업 자체는 물론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대로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발성이 또한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되는 자발적 사회의 모습도 기대할 만하다. 발전적인 사회는 자발적 사회의 성질도 갖춘다는 뜻에서 역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셈이다(김경동, 1979, 1984).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면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의 성격이 바뀌는 데 따르는 노동력의 재분배와 고용의 조정이라는 적용의 어려움이 반드시 생겨난다. 게다가, 새로운 노동과정이란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 및 통제를 원만하게 개방하고 평준화시킨다는 전제가 없으면 무의미해진다. 오히려, 공업사회의 공장형 노동과정에서 보다도 더 집권적 중앙 통제와, 기기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쟁점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셋째, 그것은 곧 사회의 조직원리라는 관점

에서 검토하는 길이다. 공업사회의 전형적인 조직원리가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획일성이라고 한다면, 정보화 사회의 그것은 분권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다양성의 원리일 것이라고 한다. 위의 노동과정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그러한 체계를 갖게 되는 한, 사회의 조직원리도 지역과 제도영역과 계층과 그밖의 사회체 측면에 따른 분권화, 평준화, 다원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야말로, 역시 사회의 발전 가치의 기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구조적 변동의 증후군이 아닐 수 없다(김경동, 1984).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정보원의 통제와 통신망의 통제라는 차원에서 중앙집권적 권위적 개입과 통제의 개입성도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되면 그런 까닭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이란 현상은 그처럼 기술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고,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깊이 개입하는 것이므로,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과학적 개입의 여지가 생겨나는 셈이다.

넷째, 정보통신의 혁명은 인간의 삶의 양식과 질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삶의 가치지향에 있어서 불양수와와 소유 중심의 문화가 정보중심의 삶의 존재양식 그 자체의 중시에도 전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Lagos, 1981; 김경동 외, 1983; Kim and Lee, 1985). 이와 함께, 의식주 생활의 양식이 변하고 가족생활과 지역공동체 생활의 성격과 유형도 달라질 것으로 주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의 방향이 반드시 인간관계의 개선이라는 쪽이 될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 확실한 추론이 어려운 게 실정이다. 여기에도 양면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개인화 과정이다. 직업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활동이 개인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마련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확대해석할 때 그러한 예측이 성립한다. 그리하여, 가족생활도 개인 중심이 되고, 지역공동체의 인간관계도 이웃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고 개인 중심으로 삶이 영위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달리 보게 되면, 정보통신의 그 물이 통합적인 체계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합주의화된 생활양식의 전개도 가능하다. 그 집합화는 또 그 나름대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분권화된 집합화로서 분산된 지역공동체 단위의 새로운 집합적 생활양식이 생성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성질의 집합화는 자발적 공동체의 성격을 띠므로, 사회의 발전이라는 가치기준으로 보아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그 새로운 집합화가, 극도의 개인화로 인하여 생긴 원자화의 반동으로 형성되든가, 아니면 권력집중을 원하는 소수 집단의 방침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새로운 중앙집권적 통제의 집합화가 될 것이다. 정보통신 혁명은 언제나 이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물론, 이 밖에도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여러 모양의 사회변동을 예측해 봄직하지만, 주요 쟁점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검토에 그친다. 이제는 정보통신의 기술혁신이 우리의 일반적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전제를 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기술개발은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여건을 감안했을 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사회적 적응의 쟁점을 따로 살펴 보겠다.

4. 정보통신 혁명의 사회적 함의 - 총론과 대응

위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전개는 그 열매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일반 국민과 또 사회 제도의 각 부문에 기대치 않은 충격과 적응에의 긴장을 가져다 준다. 여기에서는 이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혁명의 급격성으로 인하여 각 부문에 문화지체 현상이 당분간 심각할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 수준에서 국민 일반이 기습(技習)에 익숙치 못함으로써 생기는 비능률과 불편, 낭비 등에서 비

롯하여 직접 직업적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이들의 재적용 기간에 발생하는 생산성의 저하, 비능률, 낭비, 교육훈련의 이중 부담 같은 데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기습에 대한 친숙감을 주는 기술적 훈련도 있어야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인식부족의 타개와 가치지향의 전환이다. 문화지체에서 가장 뒤지기 쉬우며 적응이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인간의 내면적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직업분야에서 즉각적인 이해관심이 있는 이들의 재교육과 직무 재배치는 물론 급선무이지만, 국민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는 그 나름으로 매우 시급하다. 이 점에서 한가지 아이러니컬한 점은, 정보통신 기술을 직접 담당하는 영역에서 바로 그 기제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소홀하거나 뒤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둘째, 앞에서도 여러 각도로 다루었지만, 문화지체 현상의 또 한 측면은 각종 사회제도에 긴장을 일으키고 적응의 필요를 야기시킨다는 데 있다.

정보통신 혁명은 가족생활에서 비롯, 종교, 경제, 정치, 교육, 후생복지며 여가오락에 이르는 모든 제도부문에 충격을 가져다 주지만, 이들 제도들은 그에 대처할 차비를 제때에 갖추지 못하는 지체를 경험하고 있다. 아마도 경제와 여가오락 분야를 제외하면, 모든 제도들은 충격에서 헤어나 적응하는 데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시간도 꽤 걸릴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지금이라도 속히 체계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줄 안다.

셋째, 사회학적 관심을 조금만 더 추상화시켜 약간의 철학적 쟁점까지 곁들인다면, 정보통신 사회의 인간의 의사소통, 즉 통신의 성격 자체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른바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 왜곡(distorted communication)의 쟁점이다(김경동, 1983; habermas, 1979). 인간의 사회란 구조적인 불평등, 특히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이나 집단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의 평등한 조건을 구비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왜곡통신은 다시 사회적 불

평등 구조를 보강하게 되고, 따라서 인간은 허위허식에 사로잡히고 개인의 자아표출에는 거짓됨과 버성김이 지배하는 사회는 극복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정보의 양적 폭증과 성격상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보통신 혁명은 인간의 의사소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한, 왜곡된 의사소통의 구조는 더욱 강화될 소지를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사실 정보통신 혁명의 인간적 함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왜곡통신의 시정이라는 쟁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통신 사회의 도래는 그 인간적인 의의를 상실하는, 단순히 기술적인 혁명의 개가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다가오는 정보통신 사회의 개인화·다양화·분권화를 결단한 질적인 삶의 가치를 오히려 향유하고자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두번째 물결의 공업사회적 구조와 지향을 띤 획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교육제도와 교육가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성공적인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정보통신의 기습(技襲)에 익숙하도록 재교육을 강화하는 일까지 결들여야 하는 판국에서는 교육의 혁신적 탈바꿈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는 역시 교육의 개혁을 필두로 하여, 어떤 사회의 조직원리를 새로이 형성·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가장 원초적인 쟁점이 있다. 그것은 곧 정보통신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인간화를 기하고자 하는 진실한 의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한 선택을 현대사회의 맥락에서는 정치적 선택성(political selectivity)의 원리로서 이해할 수 있거니와, 여기에서 이를 길게 해석할 계제는 못된다(김경동, 1982). 다만, 사회의 정치적 결정 과정을 개방해서 앞으로 올 정보통신사회의 조직원리를 국민적인 의지로서 재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교육혁신과 정치적 선택이 가능하자면, 사회의 구조에 유연성(structural flexibility) 또는 탄력

을 극대화시키려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직된 의식구조와 사회구조로서 정보통신 혁명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고, 문화지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적응적 변동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경동, 1979. 「발전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 1980. 「현대사회와 인간의 미래」 평민사.
 ———, 1983. 「현대사회학의 쟁점」 법문사.
 ———, “사회학의 발전- 쟁점과 과제” 진덕규 외 「한국사회의 발전논리」 통사단 출판부: 104-1420
 ———, 1985. 「현대의 사회학」 전경판. 박영사.
 김경동·이흥구·신도철, 1983.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동」 법문사: 461-499.
 오 명(?), “정보화 사회의 통신정책.” 제신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1985.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 연구 - 총괄보고서(안)」.
 한국미래학회, 1982. 「미래를 묻는다」 제 7 집.
 ———, 1984. 「미래를 묻는다」 제 8 집.
 한국사회학회 편, 1983.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 사회연구소.
 현대사회연구소, 1982.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 상」.
 김경동, 1982. “ソウルの發展における政的 淘汰の原理” 『社會學評論』 33(1): 4-15.
 日本野村総合研究所, 1984. 「NIRA 政策研究」 1(1).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Habermas, Jürgen,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Kim, Kyong-Dong, and On-Jook Lee, 1985. “Middle-class Percep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14(2): 35-65.
 Lagos, G. 1981. “The Revolution of Being: A Preferred World Model.” H. Munoz(ed.) From Dependancy to Developpnt. Boulder, Col. : Westview : 123-160.
 Lauer, Robert H. 1973.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Ally and Bawn.
 Masuda, Yoneji. 1981. The Information Society. Tokyo : Institut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Moore, W. E. 1974. Social Change. 2nd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Ogburn, W. 1966. Social Change. New York : Dell.
 Toffler, A. 1981. The Third Wave. London: Pan Books.
 1) 이러한 개념적 논의에 관해서는 김경동(1985) 참조.

- 2) 이 부분의 자료는 여러 출처에서 따올 수 있지만, 간추려 개관한 것으로 김경동(1980), 특히 4 장(95~108)과 La-uer(1973)을 들 수 있다.
- 3) 이 방법의 기본 참고자료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오명

(?); Bell(1973); 日本野科統合研究所(1984); Masuda(1981) 및 Tottle(1981); 한국개발연구원(1985), 한국미래학회(1982; 1984); 한국사회학회(1983); 현대사회연구소(1982) 등이다.

〈용 어 해 설〉

Message Switching (메시지 교환) : 이 기술은 회로 내의 연결점에서 메시지를 수락하고 적당한 출력회로가 분명할 때까지 메시지를 축적하며 그런 후에 재전송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전송기술에서 메시지는 분할된 것이 아니며 원 형태로 회선망을 통하여 보내진다. ⇒ 회선교환 패킷

Modem (변복조) : “Modulator”와 “Demodulator”의 약자. 전송의 2진 신호는 선로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시켜(Modulation function)수신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것(demodulation function)을 말한다. 회선망에서 모뎀이란 필요한 코트 변환과 동기변조를 수행함으로써 컴퓨터와 선로 사이를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 Network

Network (회선망) : 처음에는 회선망이란 여러 터미널 위치를 접속시킨 모든 회로를 뜻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이는 전송 라인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도 포함하여 단말국과 같이 전송함수를 지장하고 다양한 상호 연결을 한다. 망의 구조도 개선되었다. 망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여러 터미널이 하나의 중계국에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개의 중계국이 하나의 중앙국에 연결됨) 환상선(環狀線: loop line)형태이다. 현재의 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 구조인데, 특히 각 전송자와 수신자 사이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 시스템 구조, 모뎀, 실시

Optical Fibers (광섬유) : 투명 중심으로 구성되는 작은 반경의 섬유선들은 상이한 Optical Index를 갖는 구조에 의해 에워 싸여진다. 적당하게 조정된 빛의 빔은 섬유 내부에서 반사에 의해 전파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빛의 빔이 초고속, 초전송 능력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적합한 전송과 외부방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예 : 데이터 전송 : Lannion에서 CNET는 초당 200만 비트의 속도로 초당 8.4백만 비트에 도달하도록 계획된 디지털 접속을 제공한다.

TV : 맨하탄에서 수 100m의 연결장치는 빌딩 내부에 상(像)을 재생시킨다.

전화 : 벨 전화연구소는 반인치(1.27cm)반경을 갖는 144 광섬유 단말에 대해 동시에 전화통화를 50,000가지 전송시킨다. ⇒ 라디오 채널